

바다에서 강물로 (가제)

2023.03.31 2고
010-4178-3665
kminso1223@naver.com
각본/연출 : 강민소

주제

버림 받고 버려지는 것에는 정당성이 없다.

기획의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꽤나 각박하기만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 무언가를 버립니다. 2020년 10월 16일에는 36주 된 중고판매 사이트에 아기를 판다는 미혼모가, 2022년 5월 21일에는 아이의 분유값을 벌기위해 성매매를 한 미혼모가, 2023년 2월 21일에는 아이와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 강도 행세를 한 미혼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돈’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아기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위치한 미혼모는 아이를 입양 하거나 유기하는 사건이 매년 2만명 이상의 수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위치한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지처럼 뻗어 왜 우리는 이들을 더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는 그들이 가진 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 글에 감히 이 문제점을 담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로그라인

해수는 늙은 나이에 덜컥 임신을 하게 된다. 자신이 부모 없이 혼자 살아온터라 자신의 아이만큼은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살길 바래 아기를 버리고 가려한다. 허나, 뱃 속에서 꿈틀대는 아이를 보며 이유 모를 모성애가 아이를 지키게 한다.

캐릭터 소개

해수 (38세. 여)- 호탕하고 밝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옆집 이모 같은 인물. 삶의 어려움 속에도 다시 일어나려 무던히 노력하지만 자신의 앞에 닥쳐온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다. 자신이 어릴 적 목욕탕에서 버려진 기억이 있는데, 목욕탕에서는 엄마와 같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 속에 품고 자신이 임신한 아기를 가장 잘 보호해줄 수 있는 목욕탕에 두고 떠나기로 결심한다. 자기 입에 풀칠 할 정도의 돈과 벌써 30대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고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이 윤희의 끝을 마무리 하려 한다.

도영 (61세. 여)- 해수가 일하는 목욕탕의 주인이자 해수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해수의 딱한 처지로 인해 함께 일을 하는 도영. 해수가 어릴적 부모에게 버려질 때 해수를 구해 목욕탕에서 임시보호를 하였다. 그런 해수가 또 다시 자신의 엄마와 같이 아기를 두고 떠나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 잡아주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인생길, 그녀가 그런 인생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써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삶에 다가간다.

래퍼런스

〈온더보더〉, 〈브로커〉, 〈미쓰백〉

삽입곡

산울림- 청춘

* 목욕탕 내부와 목욕탕에 안에 있는 사우나는 씬을 나누어 표기 했습니다.

S#1. 사우나 (내부/새벽)

습한 목욕탕, 30대 후반이 된 해수, 목욕탕 바닥에 고인 물을 닦아내는 속도가 점점 거세진다. 바닥에서 파도가 치는 듯 하다. 그 옆에 크게 걸려있는 바다 그림. 목욕탕 구석에 걸려져 있는形形色색의 속옷들, 목욕탕 하수구 구멍에 긴 머리카락들이 덕지덕지 엉켜있다. 그리고 한 쪽에 궁서체로 붙어있는 '파마, 염색 금지' 종이들도 보인다. 목욕탕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

찜질복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배가 불러있는 해수의 모습이다. 작게 신음을 읊조리며 좌우로 스트레칭을 하고는 허리를 툭툭 쳐댄다. 중간 중간 흘러내려진 옷을 걷기도 하며 체념한 표정이 눈에 띈다. 청소를 하며 흥얼거린다. 산울림의 <청춘>.

해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정리하는 몸짓에 따라 흥얼거리며 한소절 씩 부른다.)

사우나 문 밖으로 아기의 울음 소리가 울려퍼진다. 걸레질을 하다 말고 문 밖을 나서는 해수. 문밖으로 나가자 한 아이의 엄마가 포대기에 감싸진 아기를 놓고 다급히 나간다. 점점 멀어져가는 뒷모습과 한 손에 들려져 있는 짐가방. 해수의 엄마가 문을 열고 나가자 휘앵- 하는 시린 겨울 바람 소리가 들린다. 그것도 잠시 젊은 도영이 버려진 해수를 품에 안는다. 도영의 손목에 보이는 팔찌.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간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해수. 작게 한마디 내뱉는다.

해수

엄마...

(눈물이 고여있고 가냘픈 목소리로 작게 말한다.)

타이틀 인 <강물에서 바다로>

S#2. 목욕탕 앞 (외부/새벽)

창백한 새벽, 여름의 진득한 공기와 텅 빈 거리. 집에서 나온 해수.

이마에 땀이 송골 송골 맺혀 있다. 얇은 반팔에 평퍼짐한 바지를 입고 있다.

가게의 문들은 거의 닫혀있고 거리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굽은 허리와 한 손으로 불러온 배를 품고 걷는다.

전화벨 소리에 바지에서 꺼내 받는다.

해수
여보세요.

산부인과 간호사

곧 진진통 시작되실 거예요. 가능한 병원에 내원하셔서 마지막 검사 받으세요~
혼자 하기 힘드실테니까 보호자 분이랑 동행하셔야 할 거예요.

해수
네- (다른 미사여구를 하기 싫은 듯 짧은 대답으로 마무리 하려한다.)

전화를 끝맺기도 전에 차 한대가 썹- 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자신도 모르게 필사적으로
배를 감싸는 해수. 차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다시금 목욕탕을 가기 위해 걷는다.

S#3. 목욕탕 (내부/낮)

해수가 목욕탕에 들어서고 도영이 해수를 반긴다. 도영의 손목에 보이는 팔찌.

도영
왔네~

해수
이모 혼자서 다 하면 어떡해~ 나랑 같이 하지!

도영
다 만삭인 임신부를 내가 시키냐.

해수
아니 그래도... 곧 그만 두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모는 이제 나 없어서 힘들텐데.
(해수 캐비닛으로 발걸음을 옮겨 닦기 시작한다.)

도영

그건 내가 알아서 하네요~

해수가 일하는 목욕탕에 손님들이 하나 둘씩 들어온다.

고개를 돌려 열린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반긴다.

해수

안녕하세요~

목욕탕 손님1

네~

인사해야지! (옆에 있는 딸을 툭툭 친다.)

목욕탕 손님1 딸

아니 가기 싫다했잖아... 왜 맨날 맘대로야.
몰라 아빠보고 데리러 오라 할거야. (짜증을 내며 평상에서 휴대폰을 만진다.)

멍하니 단란한 모녀를 바라본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해수.

자신의 배로 눈길을 옮긴다. 다시금 일을 한다.

도영 분주한 손길이 오간다.

그것도 잠시, 목욕탕 구석에 마련된 공간에 작은 상이 놓여있고 상에는 건강식.

콩밥과 미역국, 시금치, 김치 등 다양하게 차려져있다.

도영

해수야~! 와봐. 뭐라도 먹으라고... 임신부는 맵고 신 게 멍긴대. 그렇게 빠쩍 말라서 애는 키우겠어? 기냥 요만큼 김치 좀 해왔어. 먹어.

해수

이게 뭐야~ 누가보면 나 생일인 줄 알겠네. 고마워...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조심스레 배를 감싸고 앉는 해수. 미역국을 먹으려 하자 육-하고 입덧을 한다.

그런 해수를 측은 하게 바라보며 휴지를 몇 장 뿜아 건넨다.

머쓱하게 웃어보이며 고개를 꾸벅인다.

Cut to

해수, 사우나에 널부러져 있는 의자들을 정리하며 나온다.

목욕탕 손님2(경남)가 평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다.

해수가 수건을 털며 경남의 눈치를 보다 말을 건다.

해수

오늘 기분이 안좋아보이시네~ 무슨 일 있어요?

목욕탕 손님2 (경남)

어.. 자기야~ 오랜만~ 그냥... 뭐 좀 복잡하네...

해수

털어놓으면 그나마 나아지잖아요. 말씀만 하셔 다 들어드리니까.

목욕탕 손님2 (경남)

아니.. 그게 아니구. 글썄 내 남편이 막 애를 낳자고 하는거야.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낳냐고...

해수가 상을 닦다 경남의 '애를 낳자고-' 라는 말에 멍청한다.

목욕탕 손님2(경남)이 갑자기 해수를 배를 보고 머쓱은 웃음을 보이며 둘러댄다.

목욕탕 손님2 (경남)

나는 자기보다 더 늙었으니까~ (한 쪽 눈을 꿈뻑이며 봐달라는 눈치이다.)

해수

그럼 뭐... 지금 나이에든 남편이 낳으라고 하는거면 여유가 좀 있나봐요~

목욕탕 손님2(경남)을 떠보는 해수.

목욕탕 손님2 (경남)

그냥 남편하고 둘이 살긴 괜찮지. 그래도 애 하나 있으면.. 좋겠

손님들 말을 듣고 있던 해수, 경남의 말을 끊는다.

해수

그럼 애 키우면 잘해주시겠어요. 부족함 없이. 뭐 남편도 착하구 그러시나?

목욕탕 손님2 (경남)

남편? 결혼하면 남의 편이야..~!

목욕탕 손님3

자기 또 그 소리야? 그냥 애 하나 낳아~ 그리고 나처럼 사교댄스나 하고..
오늘도 사교댄스 모임 있어서 뽀뽀 찜찜 갈라구~

목욕탕 손님2 (경남)

자기는 무슨 사교댄스 하는데 그렇게 찜찜 가 그냥 가면 되지~

목욕탕 손님2 (경남)

혹시 몰라~ 그 있잖아~ (능청 맞게 넘어가려한다.)

왁자지껄 웃는 손님들. 해수 혼자 멍하니 있다 같이 웃는다.

하나 둘씩 모여드는 손님들.

몽타주 (서글픈 노래.)

손님들이 목욕탕 평상에 둥글게 모여있고 웃고 떠든다.

고구마를 먹으며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해댄다.

도영이 다가와 김치를 건넨다. 하나둘씩 자리를 떠난다.

S#4. 목욕탕 (내부/낮)

퇴근 준비를 하는 해수. 나가려 하자 도영이 자신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해수에게 건넨다.

도영

여기. (돈 봉투를 건넨다.)

해수

왜? 나 아직 월급날 아니야.

도영

너 손님들한테 돈 빌린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내가 대신 갚았고 이거 필요한 걸로 쓰라고.

해수

아니... 괜찮아 이모

도영

뭐가 괜찮아 그냥 써
얼른 가~ 얼른~ (해수의 등을 떠민다.)

S#5. 해수의 집으로 가는 길거리 (외부/오후 18시-17시 경)

오전근무만 하는 해수의 일이 모두 끝난 후 목욕탕에서 나와 돈 봉투를 한번 본다.

여름 아지랑이가 끓고 인파 속으로 들어가는 해수의 뒷모습.

S#6. 해수의 집 (내부/오후)

어지럽혀져 있는 해수의 집. 해수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태교음악을 튼다.

책상 구석에 있던 수첩을 가져와 펼친다. 첫장에 있던 부채 내역에 선을 긋는다.

경남 500,000

마희아줌마 400,000

강릉연나 350,000

해수가 뒷장으로 넘기자 해수의 필기체로 적어놓은 정보들이 빼곡하다.

목욕탕 사람들의 옷장을 몰래 찍어 놓은 것과 자신이 기억하는 정보들에 상중하를 매기며 적는다.

'49세 여. 김경남.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부 갈등으로 이어짐. (상)

50대 중후반 여. 아들이 쌀쌀 맞아 딸을 원함. 손주 손녀 없음. (중)

80대 여. 박경자.' 라고 쓰여지다 만 곳에는 굵게 그은 선들이 보인다.

휴대폰으로 국내 입양 절차에 대해 검색한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춘-'이 보이고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들이 보인다.

창문이 반쯤 열려있고 그 틈 새어 들어오는 사채업자의 욕설과 고성방가 소리.

해수의 집으로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린다.

해수 옷장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다. 뚜렷하게 들리는 욕설.

해수 몸이 점점 떨어온다. 배가 아려오는 듯한 해수.

그 때, 옆 집에서 민원이 들려오고 사채업자가 침을 뱉고 나가는 발걸음이 들린다.

얇은 여름 이불에 누워 홀로 진통을 한다. 마치 태아의 자세처럼 보인다.

울음을 참는 해수.

Cut to

도영이 김치통을 들고 해수의 집 앞에 와 있다. 도영이 해수의 집 문을 두드리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문고리를 열어보는데 굳게 잠겨있다. 도영의 시선에 더러워진 문이 보인다.

김치통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호스를 틀어 집 앞을 청소해준다.

S#7. 천원 세상 DC 마트 (외부/아침)

해수가 어디론가 간다. 디씨마트에 도착해 크게 보이는 간판에 주춤하다 들어간다.

아기 용품들이 있는 코너로 향한다. 아기 용품들이 한데 마구 겹쳐져있다.

그 중에 가장 보기에 좋고 깨끗해보이는것들만 고른다.

다른 코너에 가 해수가 필요한 물건들도 산다.

해수가 집은 작은 샴푸와 인스턴트 음식들.

저 멀리 도영이 보인다. 해수인 것을 알아채고 멍하니 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도영.

DC마트 직원

네~ 3만 4천원 입니다.

...

어? 카드 한도 부족..이라고 뜨는데요... (해수의 옷차림을 보며 뜬눈이다.)

해수

네? 아 잠시만요... (도영이 준 돈 봉투를 보며 고민하다 돈을 빼내어 건넨다.)
여기요.

DC마트 직원

네~

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고개를 꾸벅이고 빠르게 나와 장 본 것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한 손에는 배에, 또 다른 한 손은 짐을 든 채 좌우를 살피며 목욕탕으로 향한다.

S#8. 목욕탕 (내부/새벽)

어두운 목욕탕 안, 하나씩 불을 켜다.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며 손님들이 안쓰는 캐비닛으로 가는 해수. 청테이프로 엑스자를 붙여놓았다.

장본 것들을 하나씩 평상에 꺼내든다. 모빌, 아기 장난감, 쪽쪽이, 이불, 배넛저고리 등 눈에 담고는 캐비닛에 하나 둘 아기의 집을 만들어준다. 옷걸이에 걸린 모빌. 작게 흔들린다.

캐비닛에 경남에게 쓴 편지 그리고 하나는 아기에게 쓴 편지가 있다.

인서트

'아직 세상은 아무도 이 아기를 모릅니다. 제가 일을 가면 혼자 굶으면서 울고만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어 누구보다 예쁘고 소중한 내 자식을 보냅니다. 저는 가족도, 친

구도, 돈도 없어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너무 걱정이 되어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건 아기에겐 못 할 짓이란 생각에 열 달을 품고 살았습니다. 혼자서 월세방에서 아이를 키울 일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전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아가야, 너를 낳은 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전부라서 너무 미안해. 나와는 달리 너는 배부르고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모습을 엄마는 잊지 못할거야. 사랑해, 사랑해.'

그 때, 도영이 들어서고 서둘러 캐비닛을 닫는다.

도영
뭐해?

해수
캐비닛 정리하고 있었어. 많이 더럽길래~
(갑작스러운 도영의 등장엔 놀라 주춤하며 캐비닛 앞을 가로 막고 있다.)

도영
요즘 아줌마들 항상 그래.
자기 몸은 깨끗하게 하러 오면서 캐비닛은 막상 더럽잖아.
여기가 뭐 쓰레기장도 아니고.
(가지고 온 짐들을 놓고 옷을 갈아입는다.)

해수
그러게. 쓰레기장이 아닌데. 더럽고... 차가우면 안되잖아.....
(캐비닛을 바라보며.)

도영
차갑다고? (한숨을 크게 들이쉬며.) 너 또 그 때 생각나서 그러지?
너 그 때 엄청 예쁘게 울었어. 생각 마~ 다 잊어.

캐비닛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다시 돌아서 탕 안으로 들어가는 해수.

S#9. 목욕탕 (내부/낮)

도영이 큰 소리로 야-야- 해수를 부른다. 대답이 없자 해수의 자리에서 마스터 키를 찾는다. 동시에 탕 안에 있던 해수 문 밖으로 도영과 목욕탕 손님이 캐비닛을 열려는 시도가 보인다. 뛰쳐가 막으려 하지만 이미 열려버린 문. 캐비닛에 둔 장난감이 또르르- 떨어져 멀리까지 간다. 흰히 열어져 있는 캐비닛. 정적이 목욕탕을 휘감는다. 해수 달려가 캐비닛 앞을 지키다.

도영

너 뭐야? (해수와 배를 번갈아 보며 역정을 낸다.)

해수 묵묵부답이다. 눈물이 고여있다.

도영

이게 미쳤어. 제 정신이야. 왜... 왜그래 대체...

해수

(뜸 들이다) 이모... 나 힘들어.

도영

이게 무슨 일이야. 왜그래...
(같은 말만 반복하다 소리를 친다.)

해수

엄마... 엄마.....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운다.)

털썩 주저앉아 울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엄마-' 소리에 놀란다.

그 때, 점점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해수의 다리 사이로 양수가 쏟아진다.

놀란 도영이 불안해하며 서둘러 캐비닛에 있던 이불을 꺼낸다.

동시에 목욕탕 물이 흘러 넘쳐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고 점점 적셔지는 것과 양수의 매치컷.

아이의 울음소리가 목욕탕을 가득 매운다. 해수, 아기를 낳는다.

S#10. 목욕탕 (내부/낮)

목욕탕 손님들이 모여 아기를 예뻐하는 모습. 도영만이 해수를 바라보며 어깨를 토닥인다.
해수 캐비닛 안에 있는 아기의 용품들을 가방에 옮긴다. 손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캐비닛 안의 시점에서 해수의 점점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보인다.

포대기에 싣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나가는 해수.

한번 뒤를 돌아보고 유년 시절 자신을 떠나보내주듯 미소를 보내며 손을 흔든다.

그리고는 흘러나오는 음악. 산울림의 <청춘>.

'날 두고간 너는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가는 세월이야. 정둘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
답던 옛 동산찾는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밝은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없는 날들을-'

END